

다니엘서 - 40번째

폴

Jeff Pippenger

2024-01-04

다니엘 1장은 다니엘 4장과 겹쳐서 읽어 보면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는 봉함이 풀렸고, 봉함이 풀린 부분은 7장, 8장, 9장이었다. '줄 위에 줄'로 1장, 4장,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첫째 천사의 밀러파 운동의 역사를 보여 준다.

그 역사(1798년부터 1844년까지) 속에서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들이 확립되었고, 그 진리들은 결국 1843년 개척자 도표에 제시되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그 도표에 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환상들도 도표에 있다. 8장의 '항상 드리는 제사'가 제시되어 있으며,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 역시 그렇다. 계시록 9장에 제시된 이슬람의 세화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진리들이 공격받을 것이라고 거듭 미리 경고하셨다.

시온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있는 이들은 백성 앞에 놓인 위험을 볼 수 있고,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고가 이르렀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이른 이래 우리가 세워 오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흔들 것이 들어오도록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으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여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으며 빛을 구하던 가운데 우리의 발이 놓이게 된 그 기초 위에서 발을 떼어 놓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이래로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먼지 솔을 든 사람의 일, 곧 하나님의 말세 백성이 참여하여 이루어야 할 그 일은, 이사야가 말세의 백성과 그들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지적할 때에도 또한 나타난다. 이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기초들이 오류에 묻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게서 난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일으킬 것이요,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거할 길을 복원하는 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58:12.

'옛 황폐한 곳들'은 이교주의와 교황주의라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과 관련된 교리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교주의에 이어 교황주의가 뒤따른다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의 구도를 윌리엄 밀러는 그가 제시한 모든 예언의 틀로 삼았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 세대 동안 황폐하였던 성읍들을 중수하리라. 이사야 61:4.

틀로 제시된 예언의 구조는 그 두 세력의 역사와 관계이다. '거할 길들을 회복하는' 것은, 밀러의 틀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의 꿈에서 먼지솔을 든 사람이 한 일로

표현되었다. 이사야는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한 에스라와 귀환자들의 역사를 사례로 들어, 이전의 황폐함의 회복을 가리켰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있어 왔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얼굴의 수치를 당하였으니 오늘과 같나이다. 이제 잠깐 동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피할 남은 자를 남겨 두시고, 그의 거룩한 곳에 우리를 위하여 못 하나를 박아 주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종이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살이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소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함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한 성벽을 주셨나이다. 에스라 9:7-9.

에스라와 예루살렘을 수축한 이들은, 거할 길을 복구하는 자들인 "남은 자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에스라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레위기 26장 기도의 맥락에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큰 범 죄 가운데 있어 왔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고, 얼굴의 수치를 당해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남"은 말세의 "남은 자들"이 거할 길을 복구하는 바로 그 "남"을 가리킨다.

에스라의 남은 자들은 삼일 반이 끝날 때 부활하는 두 증인으로서,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 준 대로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성취한다.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그들은 밀러의 보석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예표했는데, 이는 밀러의 기초적 진리들을 회복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밀러의 사역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도들은 견고한 기초, 곧 만세의 반석 위에 건축하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캐낸 돌들을 이 기초 위에 가져왔다. 건축자들은 방해 없이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 때문에 매우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던 자들의 편협과 편견과 증오에 맞서 싸워야 했다. 교회의 건축자로 일하던 많은 이들은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쌓던 자들에 비길 수 있었으니,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벽을 쌓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과 짐을 올리는 자들마다, 각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더라." 느헤미야 4:17.

사도행적, 596.

이사야서의 두 본문 모두에서 그 일은 여러 세대의 기초와 황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사야는 문자적 작업으로 보여 주어진 영적 사역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켜져야 했던 기초들은 결국 가짜 보석으로 치장한 거짓된 기초에 의해 완전히 덮여 버렸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들은 벽돌과 돌을 문자 그대로 복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밀러파의 기초 진리들을 회복하는 자들이다. 그 진리들을 상징하는 것은 성소와 군대를 '일곱 때' 동안 짓밟은 두 황폐케 하는 권세에 관한 밀러의 틀이다.

그 회복의 사역은 '기초들'과 '수많은 세대의 폐허'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표현되며, '예언의 줄 위에 예언의 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기초적

진리들을 회복하는 예언적 사역을 의미한다. 기초들과 폐허를 다시 세우는 일은 하박국 2장의 두 표판인 1843년과 1850년 개혁자 도표들에 표현된 원래의 진리들을 제시하고 변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역은 '줄 위에 줄'의 늦은비 방법론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밀러의 꿈의 거짓 보석들로 대표되는 가짜 기초를 지지하려는 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는 사역이다.

원수는 이 마지막 날들에 굳게 설 한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이 시기의 위험과 의무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도록 꾸며졌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요한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그 빛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이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롯된 진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과거 경험을 빼앗아, 대신 거짓 과학을 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예레미야 6:16.

"아무도 우리 믿음의 기초—말씀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의 연구와 계시에 의하여 우리 사업의 시작에 놓인 그 기초—를 헐어 버리려 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오십 년 동안 이 기초 위에 건축해 왔다. 사람들이 새 길을 발견하였으며 이미 놓인 것보다 더 강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기만이다. 이미 놓인 것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리들을 확립하는 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건물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 그것은 곧 무너졌으니, 이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을 대면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들도 거짓 이론들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런 다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굳게 서서,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는가? 고린도전서 3:1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에게 능력의 말씀을 보내셨으며, 그 말씀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내어 현재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거룩한 불에 닿은 입술로 하나님의 증들은 그 기별을 선포하였다. 신적 발언은 선포된 진리의 진정성에 그 인을 쳤다." Testimonies, volume 8, 296, 297.

"마지막 날들에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은 에스겔 37장의 두 예언과 연관된 사역이다. 한 메시지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고, 에스겔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흘 반 동안 소돔과 이집트의 도시의 거리에서 죽어 있던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 그들은 이어 자신들이 마태복음의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지체의 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부름을 듣는다. 또한 다니엘 9장의 기도가 현재의 진리임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루어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에스겔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아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강력한 군대가 된다.

"말세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은 "줄 위에 줄"이라는 늦은 비의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일에는 1843년과 1850년 선구자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밀러파의 진리들을 회복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 두 도표는 하박국의 두 판이며, 그것들은 서로 위에 포개어 놓아야 하고(줄 위에 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두 도표는 마지막 때에 먼지술을 든 사람에 의해 회복될 기초적 진리들을 대표한다.

이들을 한 줄 한 줄로 함께 모아 보면, 1843년 도표의 오류를 밝혀내며, 그 오류는 이후 1850년 도표에서 수정되었다. 이를 하나의 표(줄 위에 줄)로 간주하면, 그 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과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를 모두 나타낸다. 이는 함께 첫 실망, 지체 기간, 밤중의 외침, 1844년 10월 22일, 그리고 큰 실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는 곧 첫 번째 실망과 한밤중의 외침, 그리고 대실망이다. 그것은 진리의 구조인데, 진리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같은 것에 근거해 있으며, 그 역사에서의 첫 번째와 마지막 실망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다. 그 단어의 가운데이자 열세 번째 글자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로 대표되는 반역의 상징이다. 두 도표를 함께 놓으면, 흠술을 든 사람에 의해 회복될 밀러주의자들의 예언적 진리에 대한 두 증인을 제시할 뿐 아니라, 14만 4천의 경험을 예표하는 경험도 식별한다.

기치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14만 4천)은 2020년 7월 18일에 첫 실망을 겪었고, 그런 다음 2023년 7월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음성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았다. 그 음성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었다.

일곱 뇌성의 숨겨진 역사에서 바로 이 시점에 반역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다음 이정표는 먼지털이개를 든 사람이 보석들을 모아 보석함에 던져 넣을 때이다. 그러자 그것들은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그때 밀러가 깨어났다. 처녀들(밀러)이 깨어날 때에는 이미 너무 늦다. 수많은 세대의 황폐함을 회복하는 일은 두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역이다. 그 일은 지금 수행되고 있다.

다니엘서 7, 8, 9장에서 올라 강의 환상으로 제시된 예언들에 대한 윌리엄 밀러의 틀은 이교와 교황권이라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였다. 그리고 퓨처 포 아메리카의 틀은 이교(용), 이어서 교황권(짐승), 그리고 배도한 개신교(거짓 선지자)이다. 두 틀을 입증하는 열쇠는 사도 바울의 글이다. 사도 바울은 고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연결한 예언적 음성이었다. 회심 이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뜻은 '선택된' 혹은 '세워진'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선발)되었으며, 그는 다른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특히 구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는 신약의 대부분을 집필했으며, 바울만큼 구약을 이해한 신약 저자는 없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서 앞장서도록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적 역사와 십자가의 시기 이후에 이어진 예언적 역사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도록도 선택되었다. 바울의 증언이 없었다면 밀러파의 예언적 이해도,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이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혼당하던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바울은 그 옛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이혼했음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의 상징임을 밝히도록 선택되었다.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에 관한 필수적인 예언의 규칙들은 주로 사도

바울의 저술에 근거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바울이 밝힌,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의 구도 안에 놓여 있었던 밀러주의자들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예언적 원칙을 살펴볼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그 원칙들이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모두 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마신 것은 그들을 따르던 그 영적 반석에서였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니라. 이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한 것을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 몇 사람이 한 것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앓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였느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음행하지 말자. 그리하여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느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또 그들 중 몇 사람이 원망한 것 같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멸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0.

짧은 열 절에서 바울은 침례의 의식이 홍해 도하에서 예표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을 따랐던 그 반석이 “영적 반석”이었으며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밝힌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이 말세에 사는 이들을 위한 본보기였다고도 지적한다. 이 본문은 경고이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과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논란의 쟁점이 된다. 재림교 신학자들은 바울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도덕적 교훈을 보여 준다고 밝힌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바울이 문자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에 의해 실제로 반복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잇 부인은 바울이 뜻한 바를 정확히 확증하기 위해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한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시대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또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구약 역사의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또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 이것이 시스터 화이트가 그 구절들에서 바울의 의미를

요약한 방식이다. 바울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문자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예증한다고 규정한 것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사탄은 이 예언적 원칙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공격을 내세웠다. 첫째는,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이 그 역사들이 도덕적 교훈을 나타낸다고만 지적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거짓 가르침은 반쪽 진리이며, 반쪽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그 역사들이 또한 반복될 사건들의 예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도록 꾸며진 반쪽 진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지금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그들이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어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축복이요, 하늘의 높은 요구를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이다.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은 기록되어 우리 앞에 제시되었으니, 우리가 그들의 범죄의 본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틀림없이 넘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된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일어난 것이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증언 1권, 609쪽.

어떤 진리를 다른 진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된다.

"구주의 어떤 말씀도 다른 말씀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쟁투, 371쪽.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직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다고 하는 가르침은 재림교 신학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데 자주 이용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 거짓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우화들로 차려 놓은 상에 담긴 반쪽짜리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거짓은 사도 바울의 글에서 지목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 준다는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공격은 반종교개혁 시기에 예수회가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요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예수회의 거짓말은 역사가 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 거짓말은 로마의 교황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는 이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것인데, 그 가르침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영적 권세가 아니라 실제 권세로 대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마에 '비밀 바벨론'이 쓰여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실제 땅에서 등장하는 음녀가 된다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교황은 (가톨릭 교회라는) 실질적 권세를 대표하는 실제 인물이지만, 그와 그의 조직은 예언에서 문자적 바벨론으로 식별되어 왔으며, 적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문자적 사례의 영적 성취로 제시될 때에만 올바르게 식별될 수 있다.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예증한다고 밝혔지만, 그가 제시한 것은 새로운 예언적 진리가 아니었다.

그의 이해는 대체로 구약에 근거해 있었고, 그의 증언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그들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옛 백성을 세운 이래로, 누가 나와 같이 부르고 선포하며, 나를 위해 그것을 질서 있게 제시하겠느냐? 장차 올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그것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바로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정녕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그런 자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44:6-8.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알파와 오메가께서는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대 민족들을 상징으로 삼으셔서, 마지막 때에 사는 이들에게 임할 '다가올 일들'을 보여 주셨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으며, 문자적 이스라엘의 경륜과 영적 이스라엘의 경륜 사이의 예언적 연결고리로 세움을 받았다. 1798년에, 그리고 또한 1989년에 종말의 때의 지식의 증가를 이해한 이들을 인도한 것은 그의 저술들이었다.

고대의 문자적 바벨론, 고대의 동방 자손,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메대-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의 끝에 나타날 영적 세력들의 상징이다. 고대의 상징들은 앞서 존재하는 문자적인 것이며, 뒤에 오는 영적인 것을 대표한다. 바울은 문자적 아담이 영적 아담(곧 그리스도)을 상징했다고까지 밝힌다.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고, 그 다음이 신령한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이시다. 흙에 속한 자가 어떠한 흙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떠한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45-49.

바울이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해 가르치는 매우 심오한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본문에서 매우 분명히 제시한 원리를 단지 확인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요; 그 후에야 영적인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자연적"이라고 지칭하는 문자적인 것이 먼저이고, 영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먼저요 자연적인 것이며, 영적 이스라엘은 "그 후에" 옵니다.

문자적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에 앞선다. 바울의 글에서 강조되는 다음 중요한 점은 문자적에서 영적으로 변화가 적용되어야 하는 역사적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문자적에서 영적으로의 예언적 변화가 확인되는 때는 십자가의 시기이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26-29.

태생이나 혈통이 어떠하든,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당신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점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각 부류는 저마다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각 부류는 그들의 가문과 언약을 대표하는 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는 육적 아담의 자녀이거나 영적 아담의 자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라. 이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나서 종을 낳는 자요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었으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해산하지 못하는 자여, 외쳐 소리질러라.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두었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22-30.

십자가의 시기에는 고대의 문자적 현실이 현대의 영적 실체의 상징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핵심적인 예언 진리들을 명확히 하여, 윌리엄 밀러가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의 틀을 세우도록 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예언적 결론을 그 틀에 근거하였다. 사도 바울이 수행한 바로 그 작업이 Future for America의 모든 예언적 결론의 틀을 이루는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을 식별하는 근거가 된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올라이 강 환상이 나타내는 지식의 증가에 대한 밀러의 이해의 틀은,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는 그의 발견에 기초해 있었다. 그는 그 발견을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얻었다. 그 이해는 마지막 때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예언적 거짓'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다.

다음 글에서는 바울의 편지에서 밀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살펴보고, 올라이 강의 환상으로 나타난 지식의 증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걸모습 아래를 보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큰 빛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적·영적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경악하지 아니한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도다. "나도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려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불의를 기뻐하였음이라."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스승이 물었다. '실상 너희는 세속적 방침에 따라 많은 일을 처리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받아들이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미혹시키는 강한 기만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 그것은 큰 속임수요,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미혹이다. 일찍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그 영과 권능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부요하여 재물이 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필요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미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증언들, 제8권, 249, 250쪽."